

JF에셋, 백광소재 지분 7.12% 보유

JF에셋은 무기약품 위주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백광소재의 보유지분을 종전 6.03%에서 7.12%로 확대했다고 7월23일 공시했다.

JF에셋은 투자차원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7/26>